

전일동향

전일대비 7.80원 하락한 1,469.70원에 마감

15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7.80원 하락한 1,469.7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2.50원 하락한 1,465.00원에 개장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원화 가치에 대한 사실상의 구두개입으로 11거래일만에 하락하며, 1,469.7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8.6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26.41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65.00	1473.40	1464.80	1469.70	1469.70
	엔화	931.59	933.88	923.35	926.41	-
	유로화	1720.24	1721.29	1702.40	1705.37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81	-4.09	-9.27	-17.54
	결제환율(수입)	-0.38	-3.08	-7.29	-14.04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강달러 압박 확대에...1,47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5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69.70) 대비 0.60원 상승한 1,468.8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강달러 압박 확대로 제한적 상승 전망한다. 밤사이 미국의 양호한 고용지표 발표에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가 낮아지며 강달러 흐름이 나타났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8만 명으로 예상치(21.5만 명)와 전주치(20.7만 명)를 모두 하회했다. 이처럼 미 고용지표가 양호한 가운데, 지역 제조업 경기 업황도 개선되며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노동시장이 안정적이라며 금리인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미국 항공모함이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 등 이란 관련 지정학적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당국 미세조정 경계감과 수출업체 네고 물량 유입 가능성은 환율 상단을 제한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66.50 ~ 1476.25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449.57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60원 ↑
- 美 다우지수 : 49442.44, +292.81p(+0.6%)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8.63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377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